

보도시점 2026. 10. 18.(일) 11:00
2026. 10. 19.(월) 오전 배포 2026. 10. 16.(금) 16:00

장바구니·식탁 넘어 학교 급식까지 K-푸드, 유럽 시장 곳곳에서 체급 키운다

- 농식품부, 세계 최대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계기 K-푸드 홍보…
MZ세대 겨냥한 시식행사·대형 유통매장 판촉으로 유럽 소비자 접점 확대
- 외식·급식 등 K-식재료의 기업 간 거래(B2B, 이하 ‘B2B’) 판로 개척과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밀착 지원을 통해 미·중·일 버금갈 ‘1선 시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2026 파리 국제식품박람회(SIAL Paris 2026)’ 참가를 계기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K-푸드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열처리 가금육·냉동식품 등 수출 전략품목의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김치·소스류 등 K-식재료의 B2B 판로를 개척하는 등 K-푸드의 유럽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유럽은 식품 규제가 엄격해 진입 장벽이 높지만, K-푸드 수출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올해 1~9월 EU 권역 K-푸드 수출액은 7억 2,83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하였다. 특히 2023년 검역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은 같은 기간 수출액이 7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2% 급증하였다. 이처럼 유럽은 미국·중국에 이어 K-푸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 나갈 전략적 의미가 큰 유망 시장이다.

* 미국 11.0%, 중국 5.1% 증가

먼저, 농식품부는 유럽 MZ세대 소비자의 K-푸드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 품목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파리 국제 기숙사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K-스트리트 푸드 시식행사를 개최하였다. 열처리 가금육으로 만든 치킨·핫도그와 떡볶이 등을 맛본 학생들은 K-푸드가 맛과 편리함을 모두 갖추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현장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는 제품 개선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대형 유통매장인 까르푸(Carrefour) 40개 매장에서 열처리 가금육을 비롯한 냉동 간편식의 판매 확대를 위해 400만 불 규모의 판촉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바이어는 “검역 타결 이후 유럽 시장에서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요가 늘어 입점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을 유럽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싶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외식·급식 등 B2B 수요처로 K-푸드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 외식·유통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프랑스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치·소스류 등 K-식재료를 활용한 대량 조리 레시피를 교육하였다. 향후 해당 레시피로 조리한 메뉴를 실제 급식에 제공하고, 교육에 참여한 학교가 K-식재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급식 분야의 수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권혁은 주프랑스대사와 만나 재외공관 등 현지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K-푸드의 유럽 진출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세계 미식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에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며 유럽 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라며, “열처리 가금육 등 전략품목의 현지 안착을 지원하고 K-식재료를 외식·급식 현장까지 확산시켜, 유럽을 미국·중국·일본에 버금가는 주력 수출시장으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최미루 (044-201-2174)
			주무관	이초은 (044-201-2180)